

# 갈수록 증가 성조숙증...여아가 남아보다 10배 이상 많아

## 건강 바로 알기 늘어가는 성조숙증 환자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원장

자녀 성장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가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또래보다 유독 성장이 급 발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성조숙증은 여아만 9세, 남아만 10세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약 10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2019년 10만8576명에서 2023년 18만6726명으로 5년새 약 72%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남아 3만7955명, 여아 14만8771명으로 약 80%에 달한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인석 명예원장은 "성조숙증 원인은 유전 영향도 있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특히 여아는 성조숙증 발현 시 빠른 초경으로 키 성장에 영향을 받고 여성질환과 여성암 발생 위험도 높아져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아 만 9세·남아 만 10세에

'2차 성징' 나타나면 의심

유전·소아 비만·환경호르몬 원인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해야

◇소아비만이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등이 성조숙증 유발

성조숙증은 또래에 비해 사춘기가 빨리 시작돼 '이른 사춘기'라고도 불린다. 여아는 8세 미만인데 유방이 나오고 음모가 나거나, 남아의 경우 9세 미만에 음모가 나거나 고환이 4㎖ 이상으로 커진 경우다.

최근 패스트푸드, 맵단편 음식, 야식 등 자극적이고 고 열량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서 소아비만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만으로 지방세포가 늘면서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랩틴호르몬을 증가시켜 성조숙증을 유발한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증가도 성조숙증 원인으로 꼽힌다. 살충제, 플라스틱, 캔 등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는데, 내분비 호르몬이 정상 작용을 하지 못하게 교란시켜 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성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불균형을 일으킨다.

잘못된 생활습관도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을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잠자리 시간이 늦어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성조숙증 위험을 높인다.

성조숙증은 아이는 물론 가족에게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여아는 어린 나이에 초경을 경험하면서 불편한 생활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남아는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인 성향 등 정서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초기에는 성호르몬 과분비로 키가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숙이 빨라지면 성장호르몬 불균형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혀 성인 키는 오히려 줄어 들 수 있다.

◇검진 통한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 필요

자녀가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이 활성화된 것인지 우선 확인 후 골 성숙 진행 상황,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는지, 사춘기의 진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판단한다. 또 사춘기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영양제나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한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되면 4주~12주 간격으로 지연 주사를 처방 받는다. 간혹 성조숙증을 치료하면 키가 자라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게 되는데,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다. 기름진 육류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열량이 높고

## 성조숙증 환자수 5년새 약 72% 증가



출처: 질병관리청 '조발사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소고기, 닭고기, 흰살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인석 명예원장은 "성조

숙증 치료는 아이 성장 속도를 맞춰 각종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아이 성장이 의심될 경우 소아검진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한미약품, 의료 빅데이터 협약

목표지향적 공동연구·신약 연구개발·인적 자원 협력 등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한미약품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지난 25일 열린 협약식에는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과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장 박명희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지향적 공동연구 추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협력 강화 ▲보유시설·인적 자원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 공동 수행 및 등재 목표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미약품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그룹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소개 및 연구진행프로세스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 및 향후 국제 연구 과제 수주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생명연구원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내재화하여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조선대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 체계 구축

제1차 호남권역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정보화전략계획 방안 등 논의

조선대병원은 최근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제1차 호남권역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열린 회의는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 계획에 따른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고 특성화 사업 설명 및 호남권역 내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외 지지체 7개소 및 실무협의체 참여병원 32곳(제주도 제외), 조선대병원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브리핑 및 논의 등을 진행했다.

회의 주요내용은 ▲신종감염병 대응행 대비 국가정책 ▲감염병전문병원 자원 현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방안 등이다.

윤나라 사업단장은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6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식을 가졌고, 2026년 말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건강보험 가입했지만

## '의료미이용자' 241만명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병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 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020명, 2023년 214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 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1982명, 5139만1447명, 5134만4938명, 5141만2137명, 5140만9978명, 5145만3055명 등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